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7년 8월 27일 (월)

20th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7년 단체교섭 8대 요구 확정

지재식위원장 성명 통해 “임금인상에 주력할것” 밝혀

노동조합이 중앙상징위원회와 지방본부위원회의 의를 잇따라 열고 2007년도 단체교섭 8대 요구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임금인상 요구안 ▲ 초등학교 교육보조비 지원 ▲ 초과근무수당 확대, 초과근무가산급 지급기준 변경 ▲ 각종 기념일 기념품비(4종) 인상 ▲ 보육시설 운영 확대 ▲ 복지기금 890억 출연 요구 ▲ 단체협약서 갱신에 관한 사항 ▲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재식위원장은 중앙상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그 어느때보다 임금협상에 대한 중앙감을 느끼지만 우리가 확정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 간부로서 더욱더 긴장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식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임금인상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마련한 8대 요구는 지난해 조합원이 임금동결을 감수하고 만들어낸 이익의 정당한 배분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원에게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단체교섭 8대 요구 주요내용

1.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임금인상 : 기본급 7% + ESOP무상출연 60주
- 기본급 7% 근거 : 경제성장률(4.4%) + 물가상승

- ESOP무상출연 60주 (추가: 42,500원 적용)
 - 2006년 세후 당기순이익: 12,334억원
 - 2005년 세후 당기순이익: 10,318억원
- * 증감액 : 2,017억원
 - 당기순이익 증가분 50% (1,008억원) 배분

● 초등학교 교육보조비 지원 : 1년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 회사 복지제도 중 초등학교 자녀 지원은 전무함
 - 국가 정책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
 - 근거자료
 -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통계분석집
 - 현대경제연구소 발표(2007.4.30)
- 1)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3만원 지출
- 2)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전체 89.5%
- 3)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재테크 등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불가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가산급 지급기준 확대

- 노동강도 심화에 따른 현실적 보상 필요
- 조합원 사기진작에 기여
- 초과근무수당 각 직급별 추가 10시간 가산
- 초과근무가산급 월 10일 현장근무자로 변경
- 현 기준
 - 초과근무수당 기준 : 3.4급, 전임연근직(22시간), 5.6급, 지원직(23시간) 선임연근직(18시간)
 - 초과근무가산급 기준 : 월 15일 이상 현장근무한



8월 16일 조합 간부들이 본사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다.

자로서 전주상에서 또는 지하에서 케이블포설 및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자에게는 월 7시간 가산지급

- 각종 기념일 기념품비(4종) 인상 : 각 5만원 인상
- 실질적인 물가인상에 따른 보상으로 조합원 시너지효과 기대
- 창사기념일(2001), 조합창립일(1998), 근로자날(1996), 생일(2001)

- 보육시설 운영 확대 : 광역시별 최소 1개소
- 수도권과 지방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 확대 설치 절실
- 조합원의 가정복지가 증진됨으로서 회사업무에 시너지효과 기대
- 광역시별 최소 1개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및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해당기관

- 복지기금 출연 : 890억(단체협약서 이행 800억 + 별도출연협약서 이행 90억)

- 단체협약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②항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출연 관련 800억
-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서 관련 14억 출연
- 2005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관련 76억 출연

2.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서 갱신요구 (주요내용)
 - 정년 60세로 연장
 - 유급 육아휴직
 - 명예퇴직 기준변경 및 명예퇴직금인상
 - 장기휴가제도 도입
 - 비정규 의제
 - 순직자 유족 특별채용 변경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 해고자 전원복직 : 3명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이랜드투쟁 승리!
비정규약법 전면 개정!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랜드 투쟁 승리 비정규약법 전면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동조합도 중앙 상징 및 수도권 3개 지방본부조합간부가 참석하여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간결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뉴욕아 감봉제로 이동, 매장 봉쇄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뉴욕아감봉점 타격투쟁 집회에서 "이랜드투쟁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이라며 "오늘 투쟁 이후에 민주노총 대대를 통해 힘있는 투쟁을 결의하고 동지들과 더불어 기필코 승리해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확실하게 희망을 주자"고 투쟁 결의를 밝혔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도 "사측은 이 문제를 성실화, 좀 더 생각하는 하는 교섭보다는 아직도 점수를 동원하고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상공권을 주어 회유하는 등의 졸속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뉴코 아이랜드투쟁 때문에 통상대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구속된 상태이고 이제 박성수를 교도소에 보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며 투쟁을 촉구했다. 타격투쟁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2개 단위로 나뉘어 정문 등을 가로막는 매장 봉쇄투쟁을 폐장시간까지 진행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KT그룹노조 공동본 1차회의 열려

집행위원회 구성 및 공동임단협과 관련된 주요내용 논의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공동투쟁본부 1차회의를 열고 집행위원회 구성 및 공동임단협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공동본부장에는 각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은 류준용(KT노동조합 조직처장), 조직담당은 이종석(KT링커스노동조합 사무처장), 교육선정담당은 박재범(KT노동조합 조직국장), 총무담당은 박재현(KT파워텔노동조합 부위원장), 대외협력담당은 조형일(연맹 정책실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공동본 회의를 통해 KT그룹노동조합 ▲기본급 인상 ▲정년연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정규직 차별시정 ▲과도한 배당금지 ▲KT그룹산별에 대한 노사공동연구 활동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8월말~9월초 경 KT그룹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 수련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올해 단체교섭은 임금인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노동조합이 2007년 단체교섭 8대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8대 요구안은 ▲기본급7%인상과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50%를 배분(ESOP무상출연)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가산급의 지급기준을 현실화(초과근무수당 10시간 추가가산) ▲정년연장과 장기휴가 사용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개정안 ▲복지기금출연(890억원) ▲초등학교 교육보조비 지원(1년간 월 30만) ▲기념품비 인상(각 5만원 추가인상) ▲보육시설 확대(광역시별 최소 1개소) ▲해고자 전원 복직 등입니다.

사측의 전년도 합의 사항 미이행! 단체교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교섭의 시작이 늦어진 것은 사측의 합의 미이행에서 기인합니다. 노사는 2006년 단체교섭을 통해 해고자 2명에 대한 복직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까지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노사대토론에서도 사측의 합의 미이행을 지적하고 조속한 복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측은 빠른 시일내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쌍방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년도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는 사측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측은 자신이 신뢰할만한 상대라는 것을 노동조합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명은 바로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입니다.

KT그룹 노동자가 하나되어 더 큰 힘으로 더 큰 승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은 KT그룹노조의 공동임단투를 더욱 치밀하게 조직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은 KT를 중심으로 그룹전체의 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노동조합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제 도입, 차등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 자회사를 통한 제도개악 시도는 KT를 향한 화살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T노동조합과 회사사 노동조합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KT그룹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승리하는 임단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향후 그룹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는데 큰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필코 승리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노동조합이 마련한 8대 요구안은 지난해 조합원이 임금동결을 감수하고 만

들어낸 이익의 정당한 배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단지 노동조합 집행부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최소의 임금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교섭에 돌입하면 사측관리자들은 감언이설을 유포하고 경영악화 소문을 흘릴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조합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 스스로의 분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여러분!
시작이 늦다고 절대 불만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까지 한국내 단체교섭 타

결율은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기에 얽매어 서두르는 일은 없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노동조합은 올해 단체교섭에 있어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이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측은 전년도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만한 단체교섭을 바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8월 9일
KT노동조합위원장 지재식

[민주노동당 아름다운 경선] “노동자 집권 시대가 다가온다”

기호1번 심상정 후보



는 서민 중심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질 게 뻔한 일이다.

따라서 서민이 경제의 주체로 서는 경제대안이 절실하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후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 과거의 권력인 '국가가구'의 민주화를 넘어 오늘의 권력인 '시장'을 민주화해야 함을 뜻한다. 재벌대기업, 외국자본, 관료사회(관벌) 등 세 집단의 지배 속에 양극화가 가속되는 한국경제를 서민이 주체가 되어 고루 잘사는 경제로 개혁하는 것이다.

국내 서민경제

과두지배집단 규제, 외국자본 규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관료·금융감독 개혁

자산재분배: 생산자산(금융, 기간산업)재분배, 재생산자산(교육, 주거, 의료) 재분배, 소득재분배(직접세, 부유세, 사회보장세)

형성동력: 풀뿌리경제, 전국단위 네트워크경제, 시장경제부분

한반도 평화경제

산업: 특구 등 거점개발 확대,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 물적·사회적 인프라 구축

재정: 북한지원자금 조성, 남북협력은행 설립

운영: 북한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 공동경영체제 등 다양한 운영형태 개발

동아시아 호혜경제

사회문화 연대: 호혜적 문화교류, 청년학생 교환프로그램, 사회현장 채택, 지역발전기금 조성에 의한 사회문화적 차이 극복

국가간 공조·지원강화: 여내 낙후지역 공동개발, 여내 클러스터 네트워크, 인적 자산 공동지원, 물류·에너지·환경네트워크 구축, 산업표준 설정, 과학기술 공동연구·지원

대안금융체제 및 자금조달: 탈달러 아시아 통화체제(AMF), 여내 개발기금 조성, 여내 채권시장 활성화, 여외국도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왜 '세력자 경제'인가

원내진출 이전까지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은 부유세 신설, 국방비 절감, 무상의료-무상교육 실시 등 사실상 조세·재정 분야에 한정돼 있었다. 사회복지 확충으로 높아진 서민의 구매력이 경제성장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성장-분배 선순환론'인 셈이다. '구매력 향상론'(수요론)은 물론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건이지만 여기서 그칠 경우 '분배중심모델'이라는 한계를 안게 된다.

이에 따라 분배중심 모델 영역을 넘어 서민의 공급능력을 키우는 모델을 함께 엮는 사회적 재생산 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종합적인 경제대안 모델이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모색하는 데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활동경험이 적잖게 도움이 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제교역이 늘어나면서 국가 단위의 독립적 경제발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에서도 일국모델의 한계는 확인된다. 따라서 전지구적 경제개발 추세를 바로 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국제경제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서민은 경제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불과했고, 종종 '민생'이나 '서민경제'나 해도 기껏 시혜적 보호나 지원대상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그래서

기호2번 노회찬 후보



제7공화국 11대 테제

1. <제7공화국>은 신자유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진다. (반신자유주의테제)
2. <제7공화국>은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진다. (4대기본권테제)
3. <제7공화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 실현을 국가의 임무로 한다. (통일테제)
4. <제7공화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하며, 어떠한 형태의 군사개입도 반대하고, 일체의 군사모병을 해체한다. (평화테제)
5. <제7공화국>은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차별철폐테제)
6. <제7공화국>은 전력, 가스, 철도, 통신, 공적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나 기관을 사회화한다. (사회화테제)
7. <제7공화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테제)
8. <제7공화국>은 농업을 국가공공산업으로 규정하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식생활안전을 보장한다. (농업테제)
9. <제7공화국>은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성평등테제)
10. <제7공화국>은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생태친화적인 녹색국가를 건설한다. (녹색국가테제)
11. <제7공화국>은 국민발의제, 국민소환

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저항권을 보장한다. (국민주권테제)

1. 이제는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이 직접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들어선 제6공화국 정권들은 노동자농민서민을 배반했다.

2.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재벌과 초국적자본, 투기꾼에게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체제'이다.

- 제6공화국 기득권세력의 신자유주의체제는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바꿔버렸다.

- 신자유주의체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서민의 삶은 나아질 게 없다. 바로 여기서 <제7공화국 건설운동>은 출발한다.

3. 민주노동당이 자기혁신을 통해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은 고도성장을 해왔다.

-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아직 노동자 농민 서민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4. <제7공화국 건설운동>, 노회찬이 책임지고 완수할 것이다.

<제7공화국 건설운동>은 제6공화국 기득권세력을 몰아내고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운동이다. <제7공화국 건설운동>은 신자유주의체제를 해체하는 운동이다. <제7공화국 건설운동>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운동이자, 민주노동당의 구체적 집권전략이다.

<제7공화국> 양대 가치 - 평등과 통일

- <제7공화국>은 평등과 통일을 근본가치로 삼는다.

- <평등>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7공화국>은 대한민국헌헌헌법에 명기된 바 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연대의 정신을 발전시킬 것이다.

- 한반도 내 모든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통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가치이다.

기호3번 권영길 후보

평화통일

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단계 남북 공동조치

1단계: 남북한 전면적 신뢰관계 구축

- 상대방을 부정하는 일체의 법과 제도 정비
- 주변강국과의 군사훈련 전면 중단
- 남북군사 핫라인 구축

2단계: 남북관계 공고화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 남북 총리급 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장관 회담 신설
- 남북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민족통일회의 구성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미중 4개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군축
- 한반도 비핵지대화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2. 연합연방 통일공화국 건설

「3단계 남북 공동조치」의 과정 이후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1 국가- 2 체제- 2 정부」, 즉 ① 남과 북을 묶는 '연합헌법'에 기초한 통일국가, ② 중앙정부와 2개의 지역 정부로 구성된 2정부, ③ 사회통합과 남북이질감 해소를 전제로 하는 2체제로 시작할 것입니다.

대안경제와 민생

진보적 경제성장 3대 동력

1.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

전국에는 지역경제의 핵심 축들로 특화된 공단들이 존재한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광양의 석유화학산업, 창원외의 기계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수원의 반도체 산업등이다.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밀착형 클러스터이다. 기존의 지역단위 노-사-정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노-사-정-금(용)-(대)학이 참여하는 지역경제발전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다. 전국에 산재한 특화된 공단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지역밀착형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2. 한반도 경제 통일

한반도 단일경제권 수립: 경제통일
한반도 개발 통일본드 조성

3. 북방대륙 경제권 개혁

- 북방대륙 경제권 개혁으로 제4의 세계경제권 주도

- 개방화시대,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다극화와 균형화

- 북방대륙 경제권 개혁은 동북아의 공동번영 전략

미래의제

- 지역먹거리체계 (로컬푸드시스템; Local Food System) 중심의 대안농업 정책
- 생명공학산업과 종자산업 등 생물종 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생태적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Mitigation) 대책 및 적응(Adaptation)대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재편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정책
- 신성장동력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 친환경 교통정책
- 생태도시 연계망 구축정책
- 대북친환경 에너지 지원정책
- 생태적 국가발전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

2007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모금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해당 지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방본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 참여대상자: 해당 지방본부 상집간부(비전임 포함) 및 조합간부와 관심있는 조합원
- 금액: 1인당 10만원부터
- 10만원까지 후원금은 세액공제로 다시 현금으로 환급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
- 모금 완료: 2007.08.31 (금)
- 송금 기한: 중앙본부 입금계좌로 2007.09.03 (월)까지

※ 이번 후원금 모금에서 제외된 지방본부는 연말 대선전에서 다시 모금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남지방본부 통일선봉대 활동

피곤, 더위, 수면부족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함께한 동지

동지애로 장대비를 이겨낸 통일선봉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1기(중앙통일선봉대 제8기)노동자 통일선봉대에 참가했던 4박5일간의 대장정.

얼마전 테니스 경기 도중 근육과열로 6주 정도를 코박 목발로 고생했다.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라 4박5일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말로만 들어왔던 통일선봉대에 언젠가는 꼭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나를 위한 시험의 무대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가를 결정했다. 통일선봉대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은 "고생이라 생각지 말고 일단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간단한 의복과 여벌옷까지 등이었는지 챙기다 보니 배낭이 두둑해졌다. 마침내 집결하는 8월 10일, 노랫말처럼 하늘은 파랗고 하얗게 떠 있는 구름은 마음을 설레게 했다. 광주역에서 제1기 통선에 참가하게 되는 대원동지 100여명과 전국을 순회투쟁중인 범청학련 학생통일선봉대 200여명과 합류 엄숙하게 발대식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고생길 시작이었다. 발대식 직후 3개 중대 5개 소대로 조편성이 이뤄지고 바로 군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첫째날(10일/금)은 군산 도착 예정시간에 쫓겨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야외용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잠도 쉬 겨를 없이 곧 바로 이어지는 도보와 구보로 군산 미군기지 앞을 경유하여 전남 통선대, 범청학련, 전북의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새만금으로 향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군기지 주변 흙을 채취해 보았다. 시커멓게 오염된 흙을 보면서 씩어가는 국토에 대한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이 흙들을 미군기지 정문앞에 쌓아 올리면서

통일선봉대의 마음은 벌써부터 통일의 염원이 불 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천둥이 치면서 세찬 소낙비가 쏟아졌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날 마구 퍼붓는 소나기 속에 대원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한껏 젖어버린 몸은 비를 피할 마음도 사라지게 했다. 다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 주고자 미군기지 철수하여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을 외치며 평화운동을 벌였다.

둘째날(11일/토)은 시민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영광을 시장터로 이동했다. "한미 FTA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화예술중대의 풍물을 앞세우고 유인물 배포했다. 또한 피켓을 흔들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통일의 열망을 전달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도 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통선의 활동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후 통선대를 따뜻하게 맞아준 영광지역 노동자 대표자들께서 마련해 주신 간담회 자리에는 맛있는 식사도 함께 준비돼 있었다. 끝맛이라는 것이 비싼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오후 2시경 3교대 근무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으로 이동 출·퇴근 선전전을 전개하고, 대시민 선전을 위하여 광주 시내 중심가인 충장로 삼복서점 앞으로 이동 아프가니스탄 피랍동포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무사귀환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을 담아 시낭송을 할 때에는 지켜보는 시민 모두에게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다

셋째날(12일/일)은 중앙 통일선봉대와 합류하여

광산구 일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장대비로 인해 이랜드 투쟁현장에 합류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통선대를 비롯하여 전국 순회중인 중앙통선대원 동지들과 부당해고된 노동자들 모두가 합류, 소낙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손에 손을 맞잡고 한 뜻으로 하나되어 이번 사태의 책임자 구속을 외치며 자리를 함께 지켰다. 영세업 점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피켓을 들며 우리를 앞에서 피력할 때에는 같은 노동자로서 배 아픔이 있긴 했지만 대량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자 구속처벌을 위하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 사태를 알리고 순전집회를 마무리했다.

넷째날(13일/월)은 금호 타이어 곡성공장 정문에서 출·퇴근 선전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어 오전에는 곡성을 시장터에서 유인물 배포, 풍물놀이로 지나가는 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오늘은 곡성군민들의 관심이 유독 많아 선전전하는 통선대원들까지 신이 난다. 더위와 장마속에 고생한 다며 건네주시는 할아버지의 쌈짓돈, 노점상 과일장수 아저씨의 잘익은 수박덩어리와 몇발의 내복은 우리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감동을 느끼도록 했다. 쏟아지는 빗속에 이동하던 우리는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로 숨졌다다는 하남공단 중소기업 노동자 대표의 소식을 접하고 하남 성삼병원을 방문해 조문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뒤로했다.

다섯째날(14일/화)은 어김없이 쏟아 붓는 장대비, 폭우 속에서 광주시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부당하게 해고된 청소용역 아주머니들과의 연대

이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민주노총 정희성 전 광주본부장과 한총련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10분이라는 짧은 면회시간이 주어졌지만 잠시동안이라도 그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에서 선전전을 마지막으로 광주일정을 마무리하고, 8.15경축 통일축전 참가차 서울로 상경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바람과 천둥, 그칠 줄 모르는 장대비에 싸워야 했지만 대원들 모두 신념하나라고 이겨냈던 것 같다. 잘 씻지도 못하고 심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 모두들 짜증도 났을 텐데 잘참아준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보면 4박 5일 동안 한술밥을 먹는 동지로서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하려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

마치면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통일선봉대로서

의 본질에 맞는 통일과 관련된 주된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부분일정 참여 보다는 다소 짧은 일정이라 할지라도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전일정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한다.

끝으로 기상의 악조건속에서 함께했던 대원동지들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지재식 위원장님과 임종대 전남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수(KT노동조합 동광주지부장)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1기 노동자
통일선봉대 반전·평화중대 평화중대장

대구지방본부 대구지부 탐방

“조합원의 입장을 보면 할 일이 보입니다”



대구지부 배우일 지부장(좌에서 3번째)과 집행간부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건너편에 있는 대구지사는 올해 3월에 준공한 최신건물이다. 외벽이 대형 유리로 치장돼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위에 청량감을 주고 있었다. 대구지부에 들어서 첫 느낌은 박 하사장을 깨문 듯 밀려오는 시원함이었다. 정면에 펼쳐지는 공원과 탁트인 시야가 바로 박하사장의 그곳이다.

조합간부들도 이전한지 얼마 안돼 그런지 모두들 좋아하는 분위기다. 집행간부들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휴게실, 체력단련실, 여직원휴게실, 교육장 등 조합원들을 위한 상편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뿌듯해 한다.

다음은 배우일 지부장과 일문일담.

지부장님의 일상활동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대구지부는 대구본부의 종주국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조합원들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활동을 항상 조합원과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침에 현장출동하기 전에 조합원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출신이 현장이기때문인지 몰라도 현장의 흐름과 조합원들의 고충을 파악하는데 그런 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현장출동하는 조합원들의 안전

장비를 체크하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임입니다.

대구지사가 신축건물이던데 복지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요즘 KT에서 상면공간 부족으로 많은 지부장님들이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지부가 직접 참여해 조합원들의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부실이 있는 6층은 전체가 복지관련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다. 이는 지부에서 상당히 신경쓴 부분인데 업무공간과 복지공간이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분리시켜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신축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단위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단위노사협의회는 상당부분 조합원 복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간부들이 대부분 각부서 핵심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조합원들의 고충을 파악하는데 빠르다. 이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현행 단위노사협의회가 지사지부와 지점지부가 별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발생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사내 직접 지부장들과 매월 2회 이상 모여 의사를 수렴하고 공통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부내 건전모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부내 건전모임은 현재 산악회 등 6개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탁구동호회는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도 동호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합원 중에 사람이 계속해서 더욱 잘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면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도 되고 시간조율의 문제도 있기에 마련인데 내부수혈로 인해 이러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밖에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를 들여와 체육활동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권역회의 운영은 어떻게.

지방본부내 4권역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역회의는 중앙본부에서 장려하기 전인 2004년부터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합상황을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속지부 식사문제, 세탁문제 등까지 시시콜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돌이켜 보면 무척 가슴 아픈 일인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본격적인 봉사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결성된 불이웃돕기 회원들과 조합간부들이 인연을 맺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간부들끼리 매월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저보다 집행간부들이 더 열성입니다.



대구지부에서 열고 있는 친선탁구대회

민주노총 제41차 임시대의원대회

이랜드-뉴코아 향후 투쟁계획 등 심의



민주노총 제4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21일 대방동 여성회관에서 열렸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 대회 돌입 선포에 앞서 대회사로 통해 "지금 민주노총은 중대 갈림길에 서 있고 그 중심에 이랜드 투쟁이 있다"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바로 이랜드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달라진 민주노총, 결의하고 책임지는 민주노총, 부족한 동지들을 일싸안고 함께 가는 민주노총이 되자!"라며 "오늘 이 대회는 무엇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결정단위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기풍을 바로 세우자!"라고 강조했다. 대의원 총인원 1,060명 중 사교 10명을 제외한 1,050명 중 과반수 562명을 넘긴 578명이 참석해

성사된 이날 대회는 안전으로 ▲ 80만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조직적 불매운동 결의 ▲ 9월15일~21일 강력한 이랜드투쟁 매출 분배투쟁 결의 ▲ 전 조직적인 투쟁기금 조성 결의 등이 상정되었다.

일부 대의원들이 강력한 투쟁을 기조로 선봉대를 지켜까지 확대, 8월 말 매장타격 투쟁을 뛰어넘는 강한 투쟁 전개, 9.3-9일 사이 간부파업 및 권역별 상경투쟁, 9.10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확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열띤 토론 끝에 총연맹이 제출한 안전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힘으로 860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결의문과 함께 "비정규철폐,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자!"라는 대의원대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이석행 위원장과 대의원들은 이날 "힘있는 이랜드투쟁을 벌이자!"라는 기조에 동의하면서, "이후 투쟁계획과 관련한 제시된 다양한 투쟁 안들에 대해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고 세부방침을 논의, 집행한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임시대의원대회를 폐회하였다.

아울러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12년 역사상 「이랜드투쟁」이라는 단일 안전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사상 처음이며 의미 있는 대이었다.

8·15민족통일대회

“한반도 평화는 북미관계 정상화서 출발”

광복 62주년 기념, 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을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가 15일 남부해미에서 동시진행됐다.

6.15 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 주최한 민족통일대회는 IT연맹 및 KT노동조합 상집간부를 비롯하여 제시민단체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략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분산개회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열린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그러나 얼마 뒤 있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기쁘게 행사에 참여했다.

6.15 남측위 김제남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연사들은 하나같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6.15 남측위 백낙청 상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민족 공존을 향한 '평화회담'이자 '통일회담'이 되길 희망한다"며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평화가 깃든 한반도를 만들 것과 평화협정의 앞단계로 평화선언을 채택할 것,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 질적 전환을 이루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상임대표는 또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남북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접점을 찾는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쇄되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신 상임대표도 "남북 철도 개통, 새로운 공동사업의 개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이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희망했다. 6.15 남측위 명예대표인 박용길 장로는 최근 6.15평양행사 파행과 8.15 공동행사 무산 등 일련의 사건 이후 남측위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갈등을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박용길 장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개척하면서 갈등도 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민주화와 통일의 길에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동지들을 너그럽게 품고 보듬어가지"고 당부했다.

6.15 남측위는 일본당국의 재일동포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남북해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1부 행사를 마쳤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남북해의 일본 당국이 2.13합의 이후 조성된 현 정세에 맞게 재일동포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일동포들의 민족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6.15 남측위는 2부 말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및 북미수교 체결 ▲NLL 재설정, 남북 군사훈련 중단, 실질적 군비감축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 모색 ▲일본당국의 재일동포 탄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을지로 등 도심을 행진, 광화문에 도착하여 진보연대(준)가 주최한 '반미반전 자주통일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한편, 14일에는 중앙대에서 노동, 학생 등 각 부문이 참여한 8.15 민족통일대회 전야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현장대장정 중 방문

현장대장정 중인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이 9일 노동조합을 방문 중앙상집 및 지방본부위원장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간부들은 장기간 현장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이석행위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와 지지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먼저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세력 공제활동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우리조합원들이 그동안 당원은 아니지만 당원의 의무를 다해온 분들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타



당하지만 당에서 수용하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한 만큼 조직적으로

서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총연맹 차원의 의무금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별도의 분담금을 거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면서 현재 노동조합의 규정상 허가되지 않는 부분은 지출이 어렵다는 고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위원장은 지역본부나 지구협의회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재정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향후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IT연맹, 비료 300포 북에 보내

IT연맹이 모금한 비료 300포가 7월 30일 오전 북으로 보내졌다. 이번 비료 북송은 올해 초 민주노총의 새해맞이 반전평화 금강산 통일기행에서 조선전선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민주노총은 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해 상임집행위와 중앙집행위를 거쳐 비료지원 절차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북녘 비료 보내기'로 모금된 비료 200톤 중 300포를 인도적 차원으로 북으로 보냈다. 연맹의 강하수 수석부위원장과 김배정 대협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경 부천소재(주) KG케미칼 생산 현장에서

연맹이 준비한 300포를 포함해 비료 200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명당 한포(1만원) 지원 운동을 벌였고 상반기 모금 운동 끝에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비료 10,000포(200톤)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북으로 보내는 비료는 오전 11시경 KG 케미칼 생산현장에서 20톤 용량의 컨테이너 10대에 실려 인천항으로 운송을 시작해, 8월 1일 북의 남포항을 거쳐 조선전선에 인도됐다.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간부 특별지침 시달

그 어느 해보다 2007년도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어 우리 조합간부들은 임단협 투쟁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하여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지침수행에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특별지침**
- 하나.** 게시판 현행화 (임단협 포스터 및 성명서와 각종 게시물)
- 둘.** 사측과 동행하는 각종 행사 및 회식 절대불가
- 셋.** 권역회의 시행 철저 (매월 1회 및 필요할 때)
- 넷.** 조합조끼 착용 생활화
- 다섯.** 조합 홈페이지(지방) 1일 2회 이상 반드시 방문
- 여섯.** 매일 출근 후 각실 방문 간담회 생활화 (홈페이지 자료실 활용)
- 일곱.** 임단협기간 중 휴가 절대금지
- 여덟.** 지방 및 지부 집행위원 매주 1회 회합